

부산의 고대문화와 이야기를 통한 부산의 발전 방안 연구

김 덕 삼*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부산과 세계도시
- II. 이야기를 통한 저항성, 해양성, 개방성의 외연확장
- III. 교류의 중심지 부산 이야기
- IV. 나오는 말: 부산 이야기의 효과

| 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부산의 고대문화와 이야기를 통한 부산의 발전 방안을 알아보았다. 먼저 부산과 세계도시를 언급하였다. 지금은 국가보다 도시가 중시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부산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세계도시를 구상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이야기를 활용한 소프트파워를 키울 것을 제시하면서, 부산의 상황에 입각하여 이야기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논의의 구조는 점→선→면→입체로 잡고, 교류인 점에서 저항성, 해양성, 개방성의 선으로 확장되고, 이것은 공감 등의 외연확장으로 면이 되어, 궁극적으로 입체인 세계도시 부산을 완성하는 구조를 생각했다. 부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문헌적 측면이나 문학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류’를 중심으로 한 부산만의 이야기 개발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세 가지

*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 konglai@naver.com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지도에서 보이는 것을 이용해 지구의를 반대로 보면 부산이 유라시아의 관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이야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구석기시대부터 살았던 부산을 강조하는 것이다. 순다랜드에 대한 이야기의 발굴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교류’를 확장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의 유라시아 문화코드를 기초로 유라시아적 기원, 동양 프랙탈 문화의 해양 문화적 극대화, 동서양 융합문화도시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으로서 부산과 관련된 이야기의 발굴과 검토를 언급했다. 물론 근거가 박약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산의 발전을 위해 이야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논리와 이성보다 상상력과 개연성이 가미된 다양한 이야기와 이를 발굴하려는 의지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기초가 되는 ‘교류’는 동아시아의 대표 해양도시로서 부산을 ‘세계도시’로 확장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이를 기초로 부산은 역사 문화의 도시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세계 교류의 중심지로서 MICE 도시와 물류 중심지로 발전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 부산, 문화, 고대 문화, 이야기, 세계 도시, 교류

I. 들어가는 말: 부산과 세계도시

한국 내에서의 도시 간 경쟁과 도시의 발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세종시의 등장을 비롯하여 수도권과 인천의 발전과 이와 연계된 강원, 충청권의 도약 등은 부산과 경상도 지역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부산도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현대적 감각의 고층 빌딩과 다양한 인프라의 구축 등으로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과거의 광휘를 좇을 필요도 없겠지만, 이참에 국내에 집중된 시야를 벗어나 세계를 상대로 크고 넓게 생각하여 부산 발전의 토대를 구상할 필요도 있다.

현재 세계는 국가라는 제한된 틀을 넘어 인간이 살고 생활하는 도시

라는 구체화된 삶의 터전 속에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지구상에 있는 세계의 도시 100곳에서 세계 경제 생산의 30%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부의 80%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에너지의 3분의 2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와 세계화 그리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이미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거대도시의 등장과 발전은 이제 어디에 사느냐라는 질문에 미국, 독일이라는 국가 단위의 대답 대신 뉴욕이나 베이징 같은 도시 단위로 구체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산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나 한국 내의 도시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의 도시 경쟁에 나서야 할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별도로 부산만의 도시 이미지를 증진하고, 부산만의 장점을 특화시켜 세계를 상대로 세계도시 부산으로 비상할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¹⁾

도시는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이 『통섭: 지식의 대통합』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피터 홀(Peter Hall)의 언급처럼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다. 이러한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선진 도시들처럼 부산도 정보통신기술인 ICT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도시는 토지의 수치적인 이용효율과 거대한 건물로 드러나는 외형뿐만 아니라 도시라는 배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문

1) 세계 도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능동적인 준비를 하려면 다른 도시와 차별된 방식과 내용으로 하면서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는 천진에 생태도시를 만들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지켜야 할 의미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그 도시에 거주하면 약 4%의 도시농업 또는 실내농업을 해야 하며, 폐기물의 60%를 재활용하고, 탄소 배출의 수준을 지켜야 한다. 에너지의 20%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도시 전체에 장애인시설을 설치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100%를 실현해야 하며, 교통수단은 90%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다(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유엔미래보고서2050』, 교보문고, 2016, 163쪽).

화, 그리고 시간에 대한 향수와 기억도 있어야 한다는²⁾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적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면서, 지역 주민에게 자긍심은 물론이고 외지인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시키는 ‘부산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서 자신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세상이고 이야기가 힘인 세상이다. 그런데 어떠한가? 있는 이야기도 확실하지 않으면 거부하거나 거짓이라고 비판한다. 이제는 이런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이야기’와 ‘사실’은 다르다. 이제 다양한 창조적 이야기를 이용하여 부산의 문화와 부산의 품격을 높여 세계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산이 세계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이야기’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논의의 구조는 점→선→면→입체의 구조를 갖는다. 세계도시 부산을 논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점’이 될까? 필자는 이를 ‘교류’로 보았다. 부산의 ‘교류’라는 특징에 비추어 부산과 부산의 고대 문화 속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교류인 점은 다시 여러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데, 이것을 ‘저항성’, ‘해양성’, ‘개방성’으로 보았다. 이것은 공감 등의 외연 확장으로 ‘면’이 되고, 이러한 것이 모여 ‘입체’라는 세계도시 부산을 구상하는 식으로 보았다. 다양한 이야기의 발굴과 적용을 통해 세계도시 부산이 교류의 중심지로서 개연성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상의 논리 구조로 부산의 고대문화와 이야기를 통한 부산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³⁾

2) 홍성용, 『스페이스 마케팅 시티』,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09, 9~10쪽.

3) 제목에도 언급되었지만 부산의 고대문화에서 ‘고대’라는 뜻은 고대, 중세, 근대의 구

본문에서는 점→선→면→입체의 논리 구조 순서로 논의를 펼치지 않았다. ‘저항성’, ‘해양성’, ‘개방성’과 외연 확장으로서 ‘선’과 ‘면’을 먼저 소개하고, ‘교류’인 ‘점’을 나중에 소개하는 것이 논의의 전개에서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세계도시 부산’인 ‘입체’를 향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부산의 이야기 혹은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거나 고대 문화 혹은 부산의 민속학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려는 내용이나 목적과 부분적으로는 일치해도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연구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창성이 본 연구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용, 근거, 논리의 취약도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선행연구들을 본문에서 이용하면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하였다.⁴⁾

II. 이야기를 통한 저항성, 해양성, 개방성의 외연 확장

분 속에서 고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는 선사시대의 이야기도 언급했지만, 본고를 통해 주장하려는 것은 현대의 제약과 한계를 벗어난 부산의 오래된 과거 문화에 주안점을 두고, 여기에서도 이야기 소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에 있다. 또한 본고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의미도 구비서사물인 설화나 서사적 구조가 미비한 일화를 비롯하여 하나의 설로 회자되었던 견해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고의 핵심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무시되고 간과되었던)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부산의 발전 방안 모색에 있다.

- 4) 본문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 물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야기를 통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은 다음의 각론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지금 21세기는 어떤 면에서 이야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세상의 부(富)는 이야기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보사회 다음인 꿈의 사회는 상품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담긴 꿈을 사고팔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⁵⁾ 바로 상품에 담겨 있는 경험이나 감성 혹은 스타일과 같은 이야기를 사고판다는 말이다. 이미 각종 이야기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새롭게 만들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1세기를 ‘이야기 전쟁’에 비유한다면, 이야기가 없는 곳은 문화 식민지로 전락되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야기의 힘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1876년에 발표한 《톰 소녀의 모험》에서도 발견된다. 개구쟁이 톰은 친구와 싸워 이모에게 담장에 페인트칠 하는 벌을 받았다. 시작은 벌이었지만, 톰은 여기에 이야기를 가미해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로 변화시켰다. 같은 일에도 어떤 의미와 꿈을 담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서 이야기의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의 힘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카일 맥도널드가 2005년 7월 12일에 시도한 ‘빨간 클럽 프로젝트’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빨간 클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더한 맥도널드는 1년 반 만에 14번의 교환을 통해, 자기가 갖고 있던 빨간 클럽을 그가 희망했던 집으로 바꿔 놓았다.⁶⁾

지금 중국은 자신들의 최첨단 과학 기기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신화 속 인물을 오버랩(Ouer lap)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달 탐사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그 이름을 달의 여신인 항아(姮娥)라고 작명하였다. 그리고 2016년 9월 15일 실험용 우주정거장을 우주에 올리면서 항아가 원래 살던 곳이자 하늘의 궁전이란 의미를 지닌 천궁(天宮) 2호라고 작명하였다. 이성과 논리의 결과인 과학 기기와 이성과 논리에 대치되는

5) 톨프 예센, 서정환 옮김, 『드림소사이어터』, 리드리드, 2005.

6) 김덕삼, 『문수창,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219~220쪽.

신화 속 이야기를 교차시키면서, 자신들의 과학과 문화를 한껏 뽐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유럽의 신화를 가져와 작명한 미국 우주선 아폴로나, 지명 혹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작명한 것보다 돋보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는 이처럼 힘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부산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부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특징으로 해양성, 개방성, 저항성을 이야기한다. 부산을 보는 다양한 시각 가운데 필자는 부산의 특징을 저항성, 해양성, 개방성으로 본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⁷⁾ 한국을 대표하는 항만을 갖춘 부산은 대항해시대의 선두로서 해양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문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성격에 따라 개방성을 지니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지만, 산과 바다, 좁은 땅에 많은 골목길로 만들어진 부산의 지리적 특성은 부산의 저항성을 키우기에 좋다.⁸⁾ 해양성, 개방성, 저항성은 기존의 부산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부산의 특징이다.⁹⁾ 앞으로 더 좋은 특징이 연구 개발되어 제시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도 부산의 지정학적 특징을 잘 담고 있고, 여기서 부산의 발전 동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7)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혼용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혼용성은 교류, 해양성, 개방성과 관계될뿐더러 부산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자칫하면 전파와 수용의 단선적인 구도로 빠질 수 있는 논의를 피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류, 해양성, 개방성과 더불어 그 역할과 특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다음의 연구에서 다루려한다.

8) 야도(野都)에서 여도(輿都)로 바뀌고, 개방성으로 인하여 다양성과 이질성을 지닌 현재 부산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저항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진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지닌 저항성이 곳곳에 유전(遺傳)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9) 본고에서 논의하는 내용의 주목적이 부산의 특징에 있지 않기에 필자는 부산의 특징을 저항성, 해양성, 개방성으로 본 것에 기초하여 부산의 발전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김덕삼, 『거대 부산 전략 시론(試論)』 『港都釜山』 32, 2016, 233쪽).

기실 저항성, 해양성, 개방성은 부산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렇다고 부산에 저항성, 해양성, 개방성의 요소가 없다고 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장자(莊子)』에서는 같다는 면에서 보면 다른 것도 같아 보이고, 다르다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것도 달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떻게 비교하고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¹⁰⁾ 결국 어떻게 개발시켜 사용할지가 더 중요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주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먼저 선점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예로서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900km, 비행기로 1시간, 열차로는 10시간을 가야 하는 핀란드 북쪽 끝 라플란드 주의 로바니에미(Rovaniemi), 그리고 여기서 다시 8km를 더 가야만 하는 산타 마을을 들 수 있다. 산타가 어느 마을에 사는지, 산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해진 게 없다. 상상속의 인물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점했다. 그래서 이 오지 마을에 사람들이 몰리고, 세상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다.¹¹⁾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개연성 있게 만들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양성, 저항성, 개방성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문화의 해양성은 부산을 가장 부산답게 만드는 특징이다. 앞으로는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해양에 대한 균비확충이 아닌 해양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올바른 해양 문화를 정립해야 한

10) 『장자』, 「덕충부(德充符)」, “다른 (인식의) 입장으로 본다면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만큼 떨어진 것 같고, 같은 (인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 自其異者視之 肝膽楚越也 自其同者視之 萬物皆一也” 그래서 장자는 상대적 입장과 상대적 입장이 흔들리지 않은 중추로서 도(道)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다양하게 보았다.

11) 2011년 이 도시에 33만 명이 방문했고, 연중 40여만 명이 찾아온다. 그 가운데 86%가 외국인이다. 산타클로스가 로바니에미에 살고 있다고 한 20세기 초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로바니에미로 산타클로스를 만나기 위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다.12) 부산의 해양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운대, 광안리 등 지역의 관광 해양성과 북항, 남항, 신항 등 지역의 항만물류해양성, 신평과 하단지역의 산업해양성, 강서와 서부산지역의 물류해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부산에만 국한하여 생각하지 말고, 한국을 대표하고 대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부산을 추구하면서 해양성과 대륙성을 동시에 품은 미래를 기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양성은 다음의 저항성과 연계되어 부산의 야성(野性)을 만들기도 한다. 거칠고 투박하면서도 도전과 패기로 자신감에 내일을 생각하는 낙천적이며 현실을 긍정하는 창조적 개성이, 거칠지만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면에 녹아 있다.13)

둘째, 부산 문화의 저항성은 문화에서 자주 거론되었지만, 정치 분야에서도 부산의 저항성을 발견할 수 있다. 부산은 개항 이후 경제적 산업화 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에서도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4.19와 10.26도 그 발단과 영향에 있어 부산, 경남지역과 관계가 깊다.14) 어쩌면 산업화의 혜택지역인 부산에서 정치적 영향이 큰 것은 정치적 역량 또한 경제적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저항성은 공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부산의 저항성이 공감하는 능력으로 확장되어 부산의 특징으로 자리 잡을 때 부산은 세계도시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은 오늘날 과거 이성을 대체하는 인간의 주요 능력이다.15) 과거 이성이 가진 인간의 특성을 오늘날 공감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공감은 감응하는 우주관에서 새롭게 발견

12) 김재송, 『영도구의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와의 연계』 『지방포럼』, 2000, 75쪽.

13) 정영자, 『세계화와 부산문화의 특성』 『지역사회』, 1995, 100쪽.

14) 유영국, 『한국 정치변동과 부산시민의 정치적 역할』 『부산학총서』 2,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4, 146~179쪽.

15) 황태연,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1』, 청계, 2015, 102~105쪽

된 인간의 핵심 능력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공감을 통해 발생하고 저항 또한 문화를 통해 발생한다. 한류가 흥행한 이유는 한국이라는 초근대 사회에 남아있는 공감이라는 전근대적인 정(情)의 문화 때문이었다.¹⁶⁾ 공감문화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기에 오늘날 ‘세계도시 부산’ 전략에는 공감문화가 다소 부족하다. 과거 이성을 강조하던 근대의 문명이 아직 공감으로 대체되기에는 그 흔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제 저항성의 DNA를 공감의 유전자로 바꿔 실천할 때이다.

셋째, 부산 문화의 개방성은 조선말 문호를 걸어 잠근 시대적 상황이나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통제되었던 동아시아의 폐쇄성에 비교하는 상대적 지적이기도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물류와 문화의 전달지로서, 현대 산업발전기 일본과의 다양한 교류 속의 통로로서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부산의 위상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다. 물론 임시수도로서 피란민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다양한 루트로 문화와 문물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멀티적인 개방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시공간에 대한 개방성이 필요하다. 시간적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와 발전을 위해서 현대뿐만 아닌 전통에 대한 적극적 개방성이 필요하고, 공간적으로는 멀리 외국의 원거리뿐만 아니라 가까운 국내 주변 지역과의 개방성을 유지하여 상생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¹⁷⁾

전통에 대해서도 개방의 문을 연 부산 문화가 개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통 문화가 가진 입체성이 전통 문화가 가진 개방성으로 연결되고 부산은 그 개방성을 계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보다 수월했다. 전통 문화가 가진 입체성에 의한 개방성은 ‘대장금’, ‘겨울연가’, ‘국제시장’ 등에 나타난 수직적 삼강오륜 윤리이다. 봉건시대의 유물로 간

16) 임희섭, 『전환기 사회의 문화와 문화변동』 『한국 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출판, 1995, 29쪽. 김승찬, 『부산지역 민속학의 현황과 미래』 『한국민족문화』 23,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2004, 246쪽에서 재인용.

17) 김덕삼, 앞의 논문, 2016.

주되어 온 삼강오륜은 최근 한류의 대성공으로 재평가되었다. 한·중·일에서 한국의 한류가 돋보이는 것은 한국에서 강조된 삼강오륜전통의 영향도 있다. 봉건시대의 잔재로 간주되어 온 삼강오륜이 한류의 원천이라는 이중적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삼강오륜에 내재된 입체적 개방성에 대한 해석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소중히 하는 현대 인문과학의 조류에서 오늘날 현대문명의 위기는 수평적 차이의 붕괴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수평적 차이의 붕괴는 수직적 차이의 붕괴 때문이라는 것이 나타났다.¹⁸⁾ 모든 관계를 수평으로만 보고 수직적 관계를 없애는 오늘날 서구지향의 교육은 수직적 차이를 붕괴시킴으로 수직적 차이까지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직적 관계의 파괴라는 서구문화로 인해 수직 교육전통이 남아 있는 한국문화가 한류로 주목받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또 다른 서구화를 진행해 온 부산의 문화가 입체적 개방성의 문화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직윤리로서 재발견된 삼강오륜의 가치는 수평윤리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수직-수평-입체의 관점에서 재해석 될 수 있는 것이다.¹⁹⁾

궁극적으로 기존의 개방성, 해양성, 저항성은 그대로 정체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여기에 부산의 현대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이야기’가 발굴 개발되어 이러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방성은 동아시아에 국한된 부산을 유라시아로 확대하고, 제조업 기반의 부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해양성은 해양에 국한된 부산을 대륙으로 확장하고, 유라시아 문화를 재생산하는 식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저항성은 공감성으로 확장되어 해양과 대륙,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부산

18) 켄 윌버, 조효남 옮김, 『감각과 영혼의 만남』, 범양사, 2000, 79~105쪽.

19) 박용규, 『한국적 가치의 발굴과 역사적 추적』 『한국적 가치의 재정립 과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229~230쪽.

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해양성, 개방성, 저항성과 이의 확장에 있어서 공통점과 핵심은 결국 ‘교류’에 모아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산과 미래의 부산을 고려하고 부산의 발전방안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소재는 ‘교류’로 볼 수 있다. 90년대 한국 최고의 항구도시인 부산은 지금, 물류뿐만 아니라 회의를 통해 사람과 계획의 교류가 일어나고, 영화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 부산의 MICE 도시와²⁰⁾ 물류 중심지로서의²¹⁾ 발전에서²²⁾ 교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부산은 ‘교류’의 의미를 적극 발전시켜 세계도시로서 교류의 중심지임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고대의 문화에서 발굴하여 이야기로 만들면 가치가 더 빛날 것이다. 물론 고대의 철이나 토기의 유통, 일본 열도 측의 흑요석 유통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초로 얼마든지 부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알지 못하거나 주류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핀란드의 산타크로스 마을처럼 존재하지도 않고, 개연성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확장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산과 고대 부산의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교류’라는 구상과 연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
- 20) ‘MICE도시 부산’이란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and Exhibition)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산업의 개최지로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선두도시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부산의 도시 브랜드이다(정주현 외, 『도시 브랜드 증거를 통한 방문객의 브랜드 개발 과정 탐색 -MICE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중심으로-』 『觀光研究』 30, 대한관광경영학회, 2014, 273쪽.
- 21) 김지은 외, 『부산 컨벤션 연계관광 콘텐츠가 개최지 이미지 기대가치 그리고 컨벤션 참가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5, 한국관광레저학회, 2013, 213~230쪽.
- 22) 부산광역시, 『부산발전 50년 역사이야기』 상권, 부산출판사, 2013, 79~80쪽.

Ⅲ. 교류의 중심지 부산 이야기

부산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경로의존성에 묻혀 새로운 형태로 생각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도시에도 그 예는 많다. 예를 들어 충무공 이순신의 고향이 어딘지 아는가? 사람들은 현충사가 있는 충남 아산이나 임진왜란의 격전지로 유명한 충무(통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 충무로에 인접해 있다.²³⁾ 별로 관심이 없다. 이처럼 이야기 소재는 알게 모르게 많이 존재한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문헌적 측면에서도 독로국, 거칠산국, 우시산국, 내산국, 장산국의 이야기라든지 부산지역을 정복한 신라장군 거도의 이야기들은 『삼국지』 동이전 및 『삼국사기』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무수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학에서도 부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풍부하고, 그 위치는 무시할 수 없다. 고려 중엽 정서(鄭弼)의 『정과정』에 이어 국문문학과 한문문학에서 모두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²⁴⁾ 또한 부산의 대표적인 전설도 개발 가능성이 크다.²⁵⁾ 부산의 전설 가운데 보편성과 지역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호국 전설, 과객기휘(過客忌諱) 전설, 환생(還生) 전설을 들 수 있다.²⁶⁾ 이러한 보편성과 지역성을 가진 것

23) 을지로와 충무로 사이에 있는 인현동1가 31-2번지, 1985년에 세운 표석만이 명보국장 앞에 있을 뿐이다.

24) 정경주, 『부산지역 고전문학의 창작 배경에 대하여』 『石堂論集』 50, 2011, 1쪽.

25) 부산은 가야로부터 출발하였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과거 김해지역이 현재의 부산지역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래서 김해 가락국(금관가야)의 건국신화를 비롯하여 허황후 도래신화(강서구 지역에 관련 유적이 존재한다) 등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6) 이러한 전설은 타지방에서도 더러 전승되거나 부산지역에 많이 전승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이 군사요충지요 범어사와 같은 호국사찰이 있기 때문이다. 또 명승지와 기방이 있어 선비나 협객과 같은 과객의 출입이 잦은 연유인 듯싶다(김승찬, 앞의 논문, 2004, 238쪽).

은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세방화)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좋은 소재 들이다. 요즘의 영화소재로서는 어떠한가? 이미 부산은 ‘친구’에 이어, 최근의 ‘국제시장’, ‘부산행’ 등으로 부산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자신의 위상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이라는 존재가 부담이 되었다. 수도권 서울은 수도권의 배후지와 공항과 항구가 인접되어 있기에 자연스레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있어서도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부산만의 전략을 강구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이나 수도권이 부산으로 자연스레 연계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발전적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한국 관광이 서울과 주변 지역 여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전역을 포함하는 여행으로 개발되어 부산이 자연스레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 나온 여행 상품에는 한국 전체 관광이 5, 6일 정도 일정에서 마무리 된다. 여기에 부산만의 특징을 극대화시킨다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부산 방문은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다. 부산만의 특징에서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고층 건물과 같은 현대화된 시설도 중요하지만, 물류와 문화와 사람이 ‘교류’하는 중심지 부산의 이야기를 발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음의 둘째, 셋째 방식의 탄력적 활용에 집중된다.

먼저 둘째 방안인 부산만의 방식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감천문화마을, 부산영화로케의 단골손님 골목문화²⁷⁾, 부산 국제영화제는 글로컬라이제이션 개념을 활용하여 중심과 차별되면서 지역적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전략과 통했다. 이미 부산과 관련하여 중심문화와 구분되는 지

27) 김대근 외, 『영화 로케도시 부산의 특성 분석』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 138~139쪽.

방의 로컬리티연구가 다양하고 방대하게 이루어졌다.²⁸⁾

그리고 셋째, 더 나아가 국내에 제한된 시각을 벗어나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를 상대로 하는 넓은 시각으로 부산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부산 문화의 특징인 저항성, 해양성, 개방성과 이것의 외연을 확장한 공감성, 해양과 대륙을 연계하는 연계성, 주체적 개방성은 결국 부산의 ‘교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특히, 유라시아 고대문화 교류 중심지로서의 부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교류’는 사람과 사업의 교류 중심인 MICE로 확장되고, 문화의 교류인 부산 영화제와 부산 관광업도 더 확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해양과 육지의 만남과 항만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물류의 교류를 발전시키고, 그 교류의 중심에 부산을 새롭게 정립하게 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것들의 맹아(萌芽)는 ‘이야기’속 부산에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부산은 한국의 부산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보다 도시가 중요해지는 오늘 세계도시 부산으로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의 중심지로서 그 시원을 고대에서 찾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가 소재로 작동하는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에서 보이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다. 부산은 지구의의를 반대로 보면 지도상에서도 유라시아의 관문이라는 점이 나타나듯이 실로 유라시아의 관문 뿐 아니라 집결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가야시대로부터 시작되는 부산의 국제성은 고려시대 잠시 미비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내려왔다.²⁹⁾ 또한 조선이 1419년 왜구를 진압하기 위해 쓰시마를 공격하고, 1426년에 부산포 등을 개방하고, 여기에 왜

28) 문재원 엮음,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 소명출판, 2013, 1~474쪽.

29) 김해시·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세아』, 주류성출판사, 2012.

관을 설치해 숙박과 무역을 허용했는데, 근래에 학계에서는 부산 속의 왜관을 “간헐 시대의 열린 공간”으로 대외교섭의 창구로서 그 의미를 적극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의 자원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여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태평양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시발점이 되고 대륙에서 보면 해양 진출의 시작이 된다. 일본이 서양문물을 대표해 동양으로 진출할 때는 터키의 이스탄불과 동서양의 경계가 되기도 했고, 지금도 미국·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의 접점이 된다. 이처럼 부산의 거시적 지형은 지형학적으로 볼 때,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육지의 끝, 아시아 대륙에서는 아시아의 끝, 한반도에서는 땅 끝이 되고, 지형학적으로는 높은 산과 깊은 바다가 만나는 장소이다.³⁰⁾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처럼 부산 앞바다인 대한 해협은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유라시아와 해양의 관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개연성을 지니고 있고 실로 그러한 역할을 해왔다. 유럽을 중심에 놓고 한국을 극동으로 몰아 놓은 유럽의 관점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극동’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극동은 미국과 캐나다인데, 우리는 세계의 극동이 되었다. 관점은 만들기 나름이다. 부산의 교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지도에서 강조하여 만드는 것이 1970년대 이전에 면적보다 방위를 중시해서 그린 메르카토(Mercator) 도법의 지도보다 과장되지 않는다. 유럽이 인도나 아라비아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만큼 유럽을 크게 그렸던 과장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우리가 보는 세계지도는 남반구에 가면 거꾸로 그려져 있다. 당연하지 않은가? 과거 유럽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그리지는 않더라도 자신을 중심에 놓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0) 김덕삼, 앞의 논문, 2016, 222~223쪽.

지도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운송할 때, 우리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아시아를 거쳐 오는 항로를 생각한다. 이것이 이전부터 이용되어 온 일반적인 항로다. 그런데 이제 북극 항로도 가능해졌다. 북극 항로의 빙하는 지구 온난화로 2020년에 6개월 정도, 2030년엔 1년 내내 녹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에는 북극 항로 전 구간에 있는 빙하가 녹아, 잠시 동안 선박 운항이 가능했다.³¹⁾

게다가 부산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래현 성곽조에 실린 이첨(李詹)의 기(記)에도 나와 있듯이 지리적으로 뛰어나고,³²⁾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하게 발전시킬 것들이 많다.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다. 변화에 맞춰 주체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³³⁾ 우리는 습관적으로 유럽 사람인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가 ‘신대륙’을 발견했고,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희망봉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희망봉의 발견에 대해서는 이슬람의 수로(水路) 안내인 이븐마지드(Ibn Mājid)가 서양의 기록보다 앞서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고, 신대륙 발견도 바이킹족이 10세기에 이미 알래스카와 캐나다 등지를 다녀왔다는 유물들이 존재한다. 이것도 명대(明代)의 정화(鄭和)가 탐험한 기록이나, 1418년 제작된 <천하제번직공도(天下諸番職貢圖)>를 필사했다는 <천하전총도(天下全輿總圖)>의 진위 여부에 따라, 최초의 발견자와 시대가 바뀌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콜럼버스가

31) 로테르담에서 부산까지 기존의 수에즈 항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2만 100km로 24일 정도 걸린다. 반면 북극 항로의 경우에는 거리는 1만 2,700km로 14일 정도 걸린다. 물론 부산과 뉴욕을 연결하는 것도 기존보다 6일 정도, 약 5,000km 정도 줄일 수 있다.

3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성곽조. “동래의 고을은 동남에서 으뜸이다. 바다 자원이 많고 토산물이 풍부하여 국가의 수요에 기여함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동쪽에는 해운포가 있으니, 옛날에 신선이 놀고 즐기던 곳이며, 북쪽에는 온천이 있으니 누대(累代)의 군왕들이 목욕하던 곳이다. 그밖에도仙境(仙境)이라 부르는 곳이 8,9군데나 된다.”(김승찬, 앞의 논문, 2004, 238쪽 재인용).

33) 김덕삼, 앞의 책, 2013, 136~138쪽.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표현보다는 표류하는 콜럼버스를 친절한 인디언이 발견해 구해 주었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백 보양보해서 1492년 10월 12일은 콜럼버스를 통해 아메리카가 유럽에 알려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문명이 본격적으로 만난 날이다. 물론, 그날 이후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배은망덕(背恩忘德)하게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량학살하고, 종족을 말살했다.³⁴⁾

부산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주체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지도에서 보는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만들어 교류의 중심을 부각시키는 것은 과거 인류 역사에 자행된 혹은 앞서의 예처럼 서구에서 행한 도를 넘는 일에 비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각국은 각자의 사실에 입각해 지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그래서 “20세기 마지막 20년간의 세계지도는 지구본 제작 회사들이 거의 두 손 들어 버릴 정도로 몇 번이고 거듭해서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³⁵⁾는 말까지 나왔다. 사실로도 그리고 상상의 이야기로도 변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부산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부산에 순다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발전시켜보는 것이다. 순다랜드에 관하여도 유전자의 다양성만으로 남방기원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면, 가덕도 고대 유적지의 발견과 유라시아 담론과 관련하여 부산의 해양문화에도 또한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 제기되었다. 먼저 가덕도 고대 유적지의 발견을 보면 독일에서 발견된 동시대 유럽인의 뼈가 부산 가덕도에서 대량으로 검출된 것은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것과 같이 불과 7,000 여년쯤 전에 순

34) 김덕삼, 위의 책, 2013, 138쪽.

35) 하름 데 블레이, 유나영 옮김, 『왜 지금 지리학인가』, 사회평론, 2015, 16쪽.

다랜드와 같은 유라시아 해양 연결 통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⁶⁾ 가덕도 유적은 나아가 해양 유라시아 교역이 순다랜드가 침강한 이후에도 장보고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사의 중심이 사실은 해양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준다. 해양중심으로 한국사를 해석하는 이론에서는 오늘날 상해와 산둥 근처 중국의 동남아 해안 민족과 한민족을 유라시아로부터 이주해 온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민족으로 간주한다. 통일신라시대 상해와 산둥 부근에 있었다는 신라방은 사실 백제가 망한 후에도 백제유민이 중국으로 넘어가 세운 도시라고 한다. 나아가 고려 왕건이나 조선 왕조 초기의 왜구가 모두 이 곳 주산해민 세력의 이주였다고 한다. 근세 일본의 발전 또한 명과 조선의 해양봉쇄정책으로 이 곳 주민이 일본으로 넘어간 결과이며 근세 이후 일본의 급성장은 이 세력의 세력 확장으로 해석된다.³⁷⁾ 특히 오늘날 중국 상권을 주름잡는 화교나 온주상인도 이 곳 전통의 유산이라고 한다.³⁸⁾

셋째,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고대 부산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보다 더 고대의 것을 가져와 사용할 수도 있다. ‘교류’를 확장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의 유라시아³⁹⁾ 문화코드를⁴⁰⁾ 기초로 유라시아적 기원, 동

36) KBS 다큐멘터리, 『코리아인 이브, 가덕도 7,000년의 수수께끼』, 2014.9.11. 방영

37) 김성호, 『중국진출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주산해민의 역사추적. v.2』, 맑은소리, 1996, 216~260쪽. 실제 운명철은 뗏목만으로 중국 주산반도로부터 흑산도를 거쳐 인천으로까지 항해하는데 성공했다. 윤명철, 『윤박사의 뗏목탐험』, 참나무, 1997, 210~216쪽.

38) 블루엔트리(주) 제작기획팀, 『삼국의 거상 (한·중·일 아시아의 상인을 유럽을 넘어 세계를 장악하다)』, 21세기북스, 2010, 19~24쪽.

39) 최치국,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역할」 『BDI 포커스』 225, 부산발전연구원, 2013, 2~4쪽.

40) 한국에서 문화코드 논의는 『컬처코드』(리더스북, 2006)의 저자인 클로테르 라파이유가 내한하여 문화코드와 문화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후 2010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과제수행의 일환으로 문화코드 연구를 시작하여, 그 결과물로 『문화콘텐츠와문화코드』(박치완·김평수 외, 한국외국어

양 프랙탈 문화의 해양 문화적 극대화, 동서양 융합문화도시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북두칠성코드와 마하사코드이다. 금정산과 관련되어 확장시킨 수메르로부터 유래되었다는 북두칠성은 전 세계적인 복잡성, 일관성의 구도, 비동질성의 아이콘이다.⁴¹⁾ 세계문화는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황금시대와 황금인종의 문화를 가져왔다고 러시아 과학은 말해오고 있다. 세계문화 가운데서도 금정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적용시킬 수 있다. 또한 금정산의 북두칠성코드와 마하사코드는 부산이 유라시아적인 종교 수요와도 부합될 수 있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을 대표하는 금정산부터 금정산 우물 정(井)의 기원은 중국이 아니고 수메르 지역의 북두칠성과 관련된 이난나전설이라고 한다.⁴²⁾ 중국과 다른 부산의 수많은 무속문화, 해양문화는 기원이 유라시아로 확대될 수 있다. 마하사코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마하사는 금정산, 가덕도의 선사문화와 최근 부산에서 주목받고 있는 허황옥과 관계된 고대 스토리를 연결하는 숨은 고리가 된다. 아도화상이 지었다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마하사”는 한국 최초의 절이 된다.

대학교출판부, 2011)가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코드는 문화산업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김후련, 『한국문화에 내재된 음양오행 코드 분석』 『글로벌문화콘텐츠』 13,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3, 20~21쪽.

41) 북두칠성과 관련된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노중평, 『유적에 나타난 북두칠성』, 백영사, 1997, 81~113쪽. 임재해 외,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 지식산업사, 2007, 18~101쪽. 정태민, 『별자리에 숨겨진 우리역사』, 한문화, 2007, 33~70쪽. 박용숙, 『사면제국』, 소동, 2010, 43~66쪽. 정형진, 『바람타고 흐른 고대문화의 비밀-유라시아 문화코드로 우리 문화 새로 읽기』, 소나무, 2011, 146~164쪽. 데이비드 윌록, 박영오 역, 『소스필드: 그 모든 의문, 그 모든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 맛있는 책, 2013, 517~541쪽. 김정민, 『한국의 전통문화와 천문의 상관관계 - 설날의 기원과 천문학적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38, 2015, 61~81쪽 ;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글로벌컨텐츠, 2015, 269~291쪽의 관련 자료가 있다.

42) 정형진, 위의 책, 2011, 145~164쪽.

“마하사”가 한국 최초의 절이라면 불교 용어 중 가장 큰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마하”라는 의미는 그 유래에 어울리는 이름이 된다. 미륵의 원래 이름인 Mitreya가 메소포타미아의 미트라와 연결되듯이 불교도 단순히 인도문화라기보다 유라시아와 연결되는 전통이 있다. 허황옥이 첫날밤을 지냈다는 강서구 명월산 허황옥 유적은 쌍어문으로 대표된다. 쌍어문은 불교뿐 아니라 기독교의 상징이기도하고 태극기의 원래 모습이기도 하다.⁴³⁾ 따라서 허황옥은 불교신자가 아니라 당시 인도에 있었다는 로마 기독교와 연관된다고도 한다.⁴⁴⁾ 8개의 산이 있어 팔금산이 부산이 되었고⁴⁵⁾ 그 한 가운데 위치하여 “마하사”가 되었다는 마하사의 “마하”는 또 쌍어문이 가진 “크다”는 의미와 통한다.⁴⁶⁾

불교, 기독교, 메소포타미아 등 서역 계통 뿐 아니라 마하사가 위치한 동태는 동양의 신선문화와도 연결된다. 동래(東萊)는 부산의 원래 이름으로 동쪽의 봉래산이라는 산해경을 연상시킨다. 산해경은 마하사와 연결되는 금정산, 8금산이 금강산과 연결됨을 보여준다. 8금산의

43) 불교, 기독교의 쌍어문은 전통적 태극기 양쪽에 구멍이 있는 쌍어교미문으로 나타났다. 우보로보스의 원과 같이 우주의 무한한 순환 곧 큼을 나타냈다. 김병모, 『김수로 왕비 허황옥: 쌍어의 비밀』, 조선일보사출판국, 1994.

44) 반면 이에 대해 김태식의 『김해 수로왕릉과 허황후릉의 보수과정 검토』(『한국사론』 41·42, 서울대학교인문대학국사학과, 1999)에서는 이 쌍어문양이 영조 때 개보수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백창기, 『가악국초기 왕비족의 연구: 허황옥집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1, 9~10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 임진왜란 당시 예수회의 지원으로 조총을 선물 받아 한국을 침략한 일본의 소서행장이 동래성을 함락한 후 최초의 미사를 지낸 곳으로도 부산은 주목받고 있다.

45) 부산은 대증현이라는 술과 시루의 뜻을 가진 대증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부산문화대전, 대증현) 부산(釜山)을 과자하면 팔금산(八金山)이 된다고 하였다. 부산은 실로 6.25때 전 세계의 문화가 물려들었고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드물게 이국적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덟 개의 산을 팔금산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그 산들은 금정산, 백양산, 고원건산(엄광산), 구봉산, 천마산, 장군산, 황령산, 금련산이라고 한다.

46) 『불교신문』 1996. 9. 16, <http://m.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19> (검색일: 2016. 5. 12.)

하나인 장산과 이름이 유사한 장산국 전설에도 산해경과 관계되는 서복과의 연결고리가 있다.⁴⁷⁾ 신라 이전에 가야와 함께 있었다는 장산국의 건국전설에는 고씨족의 어머니가 최, 이, 석씨 등의 시조가 된다. 고씨가 다른 성씨의 시조가 되는 것은 고씨가 서복이 데려온 고씨, 부씨, 양씨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서복의 항해로를 따르면 서복 일행은 제주도 뿐 아니라 한반도 남해안에 수많은 유적을 남겼고 부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서복과 장산국의 건국연대는 거의 맞물린다. 또 최근 산해경에 나타난 금강산은 기원전 2000년에 세계문명의 중심지였다는 주장도 있다.⁴⁸⁾ 그 이론을 확대하면 부산은 그 금강산 문명의 시발지역이 되므로 허황옥 집안의 꿈에 부산이 나타났으며 이는 아도화상이 마하사를 건립하는 계기와 연결시킬 수 있다. 결국 가덕도, 금강산 시절 유라시아문화의 중심지였던 부산은 다시 전파된 문명을 육로와 해로를 통해 받아 들였고 신라의 경주와 경쟁관계에 있다가 거도장군의 전설처럼 신라로 통합된다는 부산의 고대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다.⁴⁹⁾

마하사 코드와 금정산 코드가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한 것은 사실의 부재보다는 해석관점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이야기 발굴이 소설과 다른 것은 입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소설보다는 사실만큼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완벽한 입증은 안 될지언정 소설과 같이 완벽한 부정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보아왔지만 통일된 관점으로 뉴턴이 해석한 후에야 과학이 되었듯 부산

47) 기장군지편찬위원회, 『장산국의 건국신화』 『기장군지(상)』, 2001.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local=busan>(검색일 : 2016. 3. 16.)) 『장산국의 건국신화』 참조.

48) 변광현, 『고인돌과 거석문화』, 미리내, 2001.

49)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도전. 백승옥, 『가야사 연구성과를 통해 본 부산의 고대사』 『향도부산』 18, 2002, 233~271에서 재인용.

의 스토리가 세계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대화라는 것도 관점이 전환되자 세계가 동양을 주목하게 했다. 과거 서구를 받아들인 동양이란 관점에서 해석된 근대화는 오늘날 동양문화를 수입해간 서양의 변형으로 해석되어 수많은 동양의 문화가 중국에서 재발굴되고 있다. 서울 다음으로 서구문명을 받아들인 부산이 아니라 서울로 고대의 문화를 전해주어 서양으로 전파시킨 부산으로 관점이 전환되면 수많은 부산의 전설이 이야기로 재탄생될 수도 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큰 기대 없이 출발한 부산 국제영화제가 성공한 원인은 부산이 유라시아 문화의 비주류문화를 대표할 수 있고 부산 국제영화제가 비주류문화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기 때문이다. 부산 국제영화제는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영화제 전후로 독립영화에 대한 예산 투자로 영화제의 영화사업화를 도모하였다. 영화제의 영화사업화가 영화제만큼 흥행에 성공하려면 영화제의 성공요인과 같은 유라시아 컨셉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문화 교류 실험의 장으로서 영화 사업이 기획된다면 부산이 유라시아 문화 재생산 MICE도시 컨셉으로 포지셔닝하는 획기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⁵⁰⁾

부산뿐 아니라 한국 전체 혹은 유라시아 전체가 ‘유라시아 문화코드’를 주제로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 문화코드’가 부산에 특히 유의미한 것은 지리학적 위치조건과 문화적 역사유산이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북두칠성의 역사를 조금만 더 살펴봐도 금정산에서 보듯이 한국이 유라시아에서 이동해 온 것은 북두칠성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찾아 이동한 역사임이 나타난다. 북두칠성을 찾아 이동해 온 도시로서

50) 이재성, 「컨벤션 개최지 선호도 측정지표 개발을 통한 포지셔닝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2-4쪽.

의 부산이라는 글로벌하고 초시간적인 부산 스토리텔링은 그 어떤 문화 콘텐츠보다 MICE도시로서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다.⁵¹⁾

반면 부산과 관련되어 ‘유라시아⁵²⁾ 문화코드와 더불어 ‘세계도시’를 추구한 것은 90년대부터 가속화된 부산 경제 위기의 대안적 모색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⁵³⁾ 먼저 언급된 ‘세계도시’ 부산의 불안한 성장 가운데 ‘유라시아 담론’이 더하여진 거시적 장기적 환경변화는 성장전략의 장기 플랜을 도모하는 부산으로서는 긍정적이다. ‘유라시아 담론’이 부산에 긍정적인 이유는 ‘세계도시’ 부산의 문화전략에 더하여 물류 기반을 강조하여 부산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변수는 많이 남아 있지만 유라시아가 연결이 된다면 관문인 부산에 큰 물리적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간주된다.

‘유라시아 담론’은 부산이 “아시아 하이웨이의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아시아 하이웨이의 관문”으로서의 부산은 전후방 산업효과와는 크지만 불안정한 MICE 도시로서의 부산전략을 안정적인 제조업 패러다임으로 대체해 줄 가장 강력한 후보로 간주된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에서 포퍼가 말한 것은 반증 가능성이 없는 철학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인간의 비판적 이성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사회는 닫힌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통해 부산의 가치를 더 높이는 데 있어, 앞서의 부산과 관련된 이야기의 소재는 반증의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히 부정하여 폐기할 만한 것도 아니다. 적어도 포퍼의 기준에

51) 박치완, 『문화와 예술의 해석 : 글로벌시대의 문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문화코드, 문화콘텐츠, 지역세계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27, 한국해석학회, 2011, 42~49쪽.

52) 최치국, 앞의 논문, 2013, 2~4쪽.

53) 김미옥, 『식민도시에서 세계도시로 가는 길 - 부산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문제연구』 17,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1, 270~272쪽.

비추어보면 닫힌 사회로 가는 엉뚱한 짓도 아니고, 핀란드의 산타 마을보다 구체적인 증거와 근거가 있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토머스 길로비치가 명명한 편향확증(Confirmation-Bias)은 “확증적인 정보에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불리한 정보를 무시해버리는 쪽이 편안하기 때문일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게으름의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구해서 확고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순신의 고향이 어딘지, 혹은 산타마을이 어디 있는지를 묻은 질문에서처럼, 현재 이야기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하여도 발굴하려는 자세와 개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미래는 밝다. 미국은 세계 곳곳을 이야기를 찾아 누비고 다닌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자신들의 투자와 기술로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과 목적을 이룬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에 너무 가혹한 이성적 잣대를 사용하는 것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수익과 맞먹는 디즈니, 그 디즈니가 만드는 이야기는 이성적 잣대로 논리적 시야로 보지 않는다. 영국을 제2의 외환 위기에서 구했다는, 1997년부터 10년 동안 올린 수익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수출해서 얻은 수익보다 많았다는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도 날카로운 이성과 논리로 접근하지 않는다. 논리와 이성에서 자유롭고, 발칙한 상상이 녹아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상품화할 것인가에만 논리와 이성이 우선시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점에 자신의 지갑을 열면서 환호하는 것이다. 지금 부산의 발전을 위해 이야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논리와 이성보다

상상력과 개연성이 가미된 다양한 이야기와 이를 발굴하려는 의지다.

IV. 나오는 말 : 부산 이야기의 효과

항구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하던 부산은 인구유출까지 발생했다. 애초 전통적 도시였다기보다는 근대화 이후 식민지의 수출창구로 일약 대도시화된 부산은 이후 전쟁, 개발 산업화 시대로 특혜를 누려왔기에 처음 맞는 위기 상황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부산이 위기를 모면한 것은 성장관리도시에서 제외되어 개발제한이 풀린 90년대 후반이(지만⁵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부산은 많은 전략적 고민을 했다. 아시아 정상급 영화제가 된 ‘부산국제영화제’나 ‘ASEAN’ 회의를 개최한 BEXCO, 해운대, 광안리, 센텀시티의 발전은 부산의 발전과 ‘세계도시’ 부산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보이게 했다. 특히 최근 감천문화마을의 성공은 부산의 도시 내재적 변화 가능성도 보여줬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거시적 측면에서 부산은 아직 과거 발전의 지속 가능성에서는 불안하다.⁵⁵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소프트파워에 힘을 실을 때다. ‘세계도시’ 부산의 기획들이 비록 단기적 국지적인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주변의 경쟁자들에 비해 차별적인 경쟁우위가 약했다. 본고의 논의에서 발굴하여 발전시킨 것은 부산 이미지 구축과 부산의 발전을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도울 것이다.

54) 구모룡, 『부산: 식민도시와 근대도시를 넘어서-부산연구의 문화론적 접근』 『인천학연구』 8,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 16쪽.

55) 우주호, 『성찰적(省察的) APEC과 부산의 미래 - APEC과 한반도의 地經學的 考察과 부산의 발전전략』 『한국시민윤리학회보』 18, 한국시민윤리학회, 2005, 139~ 141쪽.

국가의 국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되는데,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연성권력, 즉 소프트파워와 맞물린 전통문화 발전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⁵⁶⁾ 이러한 것은 그대로 도시에도 적용된다. 최근 부산의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의 발전이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 이끌 것으로서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그래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파워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⁵⁷⁾

부산과 부산지역이 갖는 저항성, 해양성, 개방성의 특징에는 ‘교류’라는 공통점이 자리하고 있다. ‘교류’는 동아시아의 대표 해양도시로서 부산을 ‘세계도시’로 확장하는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부산은 역사 문화의 도시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세계 교류의 중심지로서 MICE 도시와 물류 중심지로 발전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야기의 소재가 제한되고 제안 단계이기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함으로써 가치가 드러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활용하는 노력이 부산에 가져다 줄 선물은 명확하다.

첫째, 부산의 격을 높일 것이다. 국내 도시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속의 부산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드파

56) 軟性권력과 硬性권력의 시각으로 보는 논의도 이제 실천적이고 내실화를 다지는 상황으로 접어든 것 같다. 연성권력은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사용한 용어로서 하드파워(hard power)인 경성권력에 대응하는 용어다.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힘인 경제력, 군사력이 경성권력이라면, 연성권력은 인간의 감성적 이성적 창조적 능력과 연관된 분야를 포괄한다 할 수 있겠다. 문화적 자원을 이용해 소프트파워를 극대화한 독일과 프랑스가 있는 반면, 하드파워가 약하나 소프트파워가 강해 주목받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의 국가다. 한국과 중국이 취해야할 노선이 다를 것이다(김덕삼, 『중국의 발전과 공자의 위상 변화』 『儒敎思想文化研究』 59, 2015, 220쪽).

57) 국가적 차원에서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논의를 넘어 강력한 하드파워에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스마트파워(Smart Power)도 논의되었다(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마트 위원회 지음, 홍순식 역, 『스마트 파워』, 삼인, 2009).

위와 맞물려 커다란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둘째, 부산의 외형적 발전에 호응하게 될 것이다. 부산은 지금 해운대와 광안리 등을 중심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홍콩, 상해, 싱가포르 같은 주변국가나 인천의 송도, 청라 같은 국내 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모습이다. 차별화는 역시 이야기와 의미 부여에 있다.

셋째, 현재 부산이 직면한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부산이 직면한 제조업과 해운업의 위기감을 넘어 신산업의 개척, 국내에서의 부산의 입지 등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부산은 ‘교류’에 기초하여, 저항성과 해양성과 개방성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산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새롭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산의 차별화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莊子』, 『論語』, 『三國史記』

『불교신문』, 1996.09.16 기사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KBS 다큐멘터리, 『코리아안 이브, 가덕도 7,000년의 수수께끼』, 2014.9.11. 방영

2. 저서

강대민 외, 『(자료로 본) 부산 광복 60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6.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마트 위원회 지음, 홍순식 역, 『스마트 파워』, 삼인, 2009.

- 김덕삼, 『문수창 :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 김병모, 『김수로왕비 허황옥 : 쌍어의 비밀』, 조선일보사출판국, 1994.
- 김성호, 『중국진출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 v.1-2』, 맑은소리, 1996.
- 김정민,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글로벌컨텐츠, 2015.
- 김채수, 『알타이문명론』, 박이정, 2013.
- 김해시·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세아』, 주류성출판사, 2012.
- 노중평, 『유적에 나타난 복두칠성』, 백영사, 1997.
- 데이비드 윌콕, 박병오 역, 『소스필드: 그 모든 의문, 그 모든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 맛있는 책, 2013.
- 롤프 엔센, 서정환 옮김, 『드림소사이어티』, 리드리드, 2005.
- 문재원 엮음,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 소명출판, 2013.
-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유엔미래보고서2050』, 교보문고, 2016.
- 박용숙, 『샤먼제국』, 소동, 2010.
- 변광현, 『고인돌과 거석문화』, 미리내, 2001.
- 블루엔트리(주) 제작기획팀, 『삼국의 거상 (한·중·일 아시아의 상인들 유럽을 넘어 세계를 장악하다)』, 21세기북스, 2010.
- 부산광역시, 『부산발전 50년 역사이야기』 상권, 부산출판사, 2013.
- 윤명철, 『윤박사의 뗏목탐험』, 참나무, 1997.
- 임재희 외,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 지식산업사, 2007.
- 정태민, 『별자리에 숨겨진 우리역사』, 한문화, 2007.
- 켄 월버, 조효남 옮김, 『감각과 영혼의 만남』, 범양사, 2000.
- 하림 데 블레이, 유나영 옮김, 『왜 지금 지리학인가』, 사회평론, 2015.
- 홍성용, 『스페이스 마케팅 시티』,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09.
- 황태연, 『공자와 세계 2』, 청계, 2011.
- _____,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1』, 청계, 2015.

3. 논저

- 구모룡, 『부산 : 식민도시와근대도시를 넘어서 - 부산연구의 문화론적 접근』 『인천학연구』 8,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
- 김덕삼, 『중국의 발전과 공자의 위상 변화』 『儒教思想文化研究』 59, 2015.
- _____, 『거대 부산 전략 시론(試論)』 『港都釜山』 32, 2016.

- 김대근 외, 『영화 로케도시 부산의 특성 분석』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
- 김미옥, 『식민도시에서 세계도시로 가는 길 - 부산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문제연구』 17,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1.
- 김승찬, 『부산지역 민속학의 현황과 미래』 『한국민족문화』 23,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2004.
- 김재송, 『영도구의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와의 연계』 『지방포럼』, 2000.
- 김정민, 『한국의 전통문화와 천문의 상관관계 - 설날의 기원과 천문학적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38, 2015.
- 김지은 외, 『부산 컨벤션 연계관광 콘텐츠가 개최지 이미지 기대가치 그리고 컨벤션 참가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5, 한국관광레저학회, 2013.
- 김태식, 『김해 수로왕릉과 허황후릉의 보수과정 검토』 『한국사론』 41·42, 서울대학교인문대학국사학과, 1999.
- 김후련, 『한국문화에 내재된 음양오행 코드 분석』 『글로벌문화콘텐츠』 13,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3.
- 문재원, 『고향의 발견과 서울/지방의 탈구축』 『선망과 질시의 로컬리티』, 소명출판, 2013.
- 박용규, 『한국적 가치의 발굴과 역사적 추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적 가치의 재정립 과제, 2014.
- 박치완, 『문화와 예술의 해석: 글로벌시대의 문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문화코드, 문화콘텐츠, 지역세계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27호, 한국해석학회, 2011.
- 백승욱, 『가야사 연구성과를 통해 본 부산의 고대사』 『향도부산』 18, 2002.
- 백창기, 『가야국초기 왕비족의 연구: 허황옥집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2001.
- 우주호, 『성찰적(省察的) APEC과 부산의 미래 - APEC과 한반도의 地經學的 考察과 부산의 발전전략』 『한국시민윤리학회보』 18, 한국시민윤리학회, 2005.
- 유영국, 『한국 정치변동과 부산시민의 정치적 역할』 『부산학총서』 2,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4.
- 이재성, 『컨벤션 개최지 선호도 측정지표 개발을 통한 포지셔닝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임희섭, 『전환기 사회의 문화와 문화변동』 『한국 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1995.
- 정경주, 『부산지역 고전문학의 창작 배경에 대하여』 『石堂論集』 50, 2011.
- 정영자, 『세계화와 부산문화의 특성』 『지역사회』 20, 1995년.
- 정주현 외, 『도시 브랜드 증거를 통한 방문객의 브랜드 개발 과정 탐색 - MICE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중심으로-』 『觀光研究』 30, 대한관광경영학회, 2015.
- 정형진, 『바람타고 흐른 고대문화의 비밀-유라시아 문화코드로 우리 문화 새로 읽기』, 소나무, 2011.
- 최치국,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역할』 『BDI 포커스』 225, 부산발전연구원, 2013.
- 황태연, 『대한민국 국호의 기원과 의미』 『정치사상연구』 21, 한국정치사상학회, 2015.

투고일: 2016.09.30. 심사완료일: 2016.11.23. 게재 확정일: 2016.12.07.

| Abstract |

The study of Busan ancient culture and story

Kim, Dug-sam

This paper is on the study that analyzed via serendipity Busan culture. We assumed the accidental factors in Busan cultures which evolved Busan could ratify the future development of Busan. To examine this, the study was tried from two major research directions.

One is a structural chance that geopolitical position has brought as a spatial aspect, the other one, as the temporal aspect, is an existential chance that era came calling. In the former case, through narrow and broad meaning of Busan structural chances Busan has from geopolitical position are examined. In the latter case, through the era distinction such as the Japanese invasion, the Korean War, and the age of the industry we examine the existential.

This research showed Busan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Busan called resistance, marine, openness, we saw that he should strengthen the independence. Development of these of subjectivity will contribute to the features and development of Busan), now, and will giv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have a serendipity.

Also, as was seen in geopolitical position, Busan will be brought up the forces that lead to success with the starategy of "large Busan" to cover the Busan and the surrounding area.

key words : Busan, culture, ancient culture, story, world city, exchange